천도재, 한 편의 뮤지컬이 되다

땡큐붓다콘서트 '2019 천도재 니르바나'
6월 16일 오후 5시 서울 '더케이아트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016년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땡큐붓다콘서트'에서 음성공양하는 자명 스님.

부처님의 고마움을 문화포교로 회향하는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이 2019년 문화공양을 시작한다. 자명 스님은 6월 1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아트홀'에서 땡큐 붓다콘서트 '2019 천도재 니르바나'를 개최한다.

2014년 불교계 최초로 천도재를 소재로 한 국악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는 불교음악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여러 가지 제작의 어려운 현실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뮤지컬은 자명 스님의 원력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새롭게 변화되고 진전된 '천도재 니르바나'는 기존의 공연보다 훨씬 더 한국적이고 불교적인 한 편의 천도재다. 천도재 자체가 뮤지컬의 큰 스토리다. 불교의 대표적 의식인 천도재를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면서도 신명나고 환희롭게 한 편의 뮤지컬로 표현했다. 무주유주 고혼영가의 극락왕생과 사바중생의 현생정토를 발원하고 구현하는 장대한 서원이 담겨있다. 전통 불교의식을 명상음악으로 승화시켰고, 히말라야 명상과 국악, 마임, 무용, 현대음악이 총망라된, 뮤지컬은 문화포교 콘텐츠의 획기적 전환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리 △고(苦) 무상(無常) 비아(非我) △열반, 총 3부로 구성된 뮤지컬은 충분한 시간 동안 공력을 모아서 보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획기적인 무대연출과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박범훈, '자비명상'의 힐링멘토 마가 스님, 범패음악의 대가 범진 스님, 치유명상음악가 태현 스님, 국내 대법고 퍼포먼스의 1인자 고금 스님, 한국 마임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규, 세계적인 국악타악연주가 윤매고동,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광석, 몸짓으로 반야를 표현하는 무용가 진현실, 2018 BBS불교방송 찬불동요제 대상 수상의 김보민, 윤서영 어린이, 그리고 본 공연의 기획제작자인 자명 스님의 음성공양 등 국악, 무용, 등 예술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부대중이 대거 함께한다. 그 외 국악실내악단과 사물놀이 팀이 연주하는 선율이 공연 전반을 채운다.

범진 · 마가 스님 박범훈 등 호화 캐스팅
국악 · 무용 · 마임 · 현대음악 등 총망라
2014년 초연 뛰어넘은 새로운 뮤지컬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한 자명 스님은 "이번 '2019 천도재 니르바나'가 불교계 역대 그 어떤 공연보다 최고의 공연이 될 것이다"며 "11월 국립극장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이 일회성으로 그치지기 않고, 완성도를 보다 높여 전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의 무대에도 올라 한국불교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연의 의미와 자신의 원력을 밝혔다.

자명 스님은 본격적인 문화포교를 위해 2013년 영종불교회관을 열고 새로운 문화법석을 시도했다. 법문과 공연을 한 자리로 불러내 문화포교의 새로운 전형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땡큐붓다콘서트'가 그 시작이다. 첫 해는 매달 콘서트를 열었다. 스폰서를 찾는 일이 어려웠지만 스님의 원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콘서트가 거듭되면서 스님은 법석을 좀 더 넓히고 새롭게 만들어 불교문화, 포교문화의 새로운 길을 열고 싶었다. 2014년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새로운 뮤지컬이 공연된다. 자명 스님이 기획한 천도재 뮤지컬 '니르바나'다 불교의 아름다운 장면과 음성으로 채워진 전혀 새로운 뮤지컬은 500석을 채운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새롭게 선보이는 '천도재 니르바나'의 2019년 버전에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의 (010-9343-3001/ 자명 스님)

김경호 사경 상하이 특별 초대전

중국 상하이 정안사 6월 3~30일
정안사 방장 혜명 스님 초청
역대 개인초대전 중 최대 규모


감지금니 반야심경(20cm×44cm), 변상도(20cm×14cm)

고려사경의 맥을 잇고 있는 사경가 김경호 작가가 연이어 해외 전시를 연다. 지난 3월 뉴욕 티베트하우스에서 초대전을 열었던 김 작가는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 정안사에서 특별 초대전을 연다.

총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한문 반야심경 교본', '한글 반야심경 교본', '한글 법성게 교본', '한문 아미타경 교본'이 원문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며 유일하게 서예 작품인 감지금니 '천자문' 작품 역시 '천자문 교본'과 함께 전시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20여 회의 김경호 사경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중 최대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전시는 1800년의 역사를 지닌 상하이 대표 사찰 정안사의 방장 혜명 스님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혜명 스님은 60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고려사경이 김 작가에 의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절된 중국 사경을 부활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김경호 작가의 초대전을 마련했다.

김경호 작가는 올해 3월에 뉴욕 티베트하우스 초대전, 5월에 뉴욕 티베트하우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특강 및 금사경 제작 시연회를 개최하며 한국이 세계인쇄문화의 중심이며 고려사경이 한국에서 17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 중의 하나임을 알린 바 있다. 2003년 미국 LA Lotus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초대전 및 특강, 제작시연회 등 40여 회의 해외 행사를 통해 한국사경(고려사경)의 우수성을 알려온 김 작가는 "이번 초대전을 통해 한국 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후 중국사경의 부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특별한 미적 체험, 산사의 미술세계

노재학 전국순회사진전 서울전시
'한국산사의 단청세계, 고귀한 빛' 展
6월 5~11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

한국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노재학 사진가의 전국순회사진전이 부산과 전주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다. 노재학 사진가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한국산사의 단청세계, 고귀한 빛' 전을 개최한다.

△연화부수형 산지가람 △단청문양의 세계 △사찰벽화의 세계 △조형장엄의 세계 등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7곳의 산사를 비롯한 전국 30여 사찰의 단청문양과 벽화 사진 60여 점을 선보인다. 범어사 팔상전 천정의 단청, 영천 은해사 백흥암 불단 등 장엄한 사찰의 미술세계를 통해 오랫동안 전승된 한국 산사의 예술적 진면목을 보여준다.

한국산사 법당의 조형과 미술, 단청문양을 담은 노 작가의 사진들은 지고지순의 숭고한 아름다움의 전형을 보여준다. 종교미술 뿐만 아니라 전통문양, 도가의 길상, 유가의 태극, 호작도 같은 민화들까지 폭넓고도 풍부한 조형미술의 세계를 전통문양과 전통색채의 아름다움을 경이롭게 구현하고 있다. 한국산사 법당 내부에 오랫동안 전승돼온 장엄예술의 진면목을 커다란 울림으로 드려낸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문화유산 한국산사에 대한 놀라운 재조명이 될 것이며, 한국산사 세계문화유산등재 1주년을 조명하는 특별한 미적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여수 흥국사 대웅전 단청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수 8월 28~29일, 불화 · 조각 · 공예 · 민화 · 서예 · 문인화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
10월 23~28일 동덕아트갤러리

천태종이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대전에서는 △불화(전통 · 현대) △조각 △공예 △서예 · 문인화 △민화 등 총 5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 작품은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로 접수하면 된다.

불화와 조각분야는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불화 규격은 200호(300cm)미만이며,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가 가능하다. 조각의 규격은 높이 250cm 미만이며, 완성작을 출품해야 한다.

공예 · 서예 · 문인화 · 민화 분야는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예 규격은 가로 세로 200cm 이하이며, 서예 · 문인화 규격은 전지 이하(가로 70cm×세로 130cm)로 접수한다. 민화 규격은 120호 미만으로 배접과 액자 제작 후 접수한다. 불화 · 조각 · 공예 분야는 작품제작과정을 담은 세부작품설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품료는 각 분야 1점당 5만원이며 대학 재학생은 1점당 3만원이다.

심사결과는 9월 초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23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전시회 내 진행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상장 · 상패, 최우상 2명에게는 상금 각 500만 원과 상장 · 상패, 부문별 우수상(분야별 1명) 5명에게는 상금 각 100만원과 상장 · 상패, 가작(분야별 1명) 5명에게는 상금 각 50만원과 상장, 장려상 10명(부문별 2명)에게는 상금 각 30만원과 상장, 특선에는 상장 · 상품, 입선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대상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출품서류(출품원서, 작품설명서) 작성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편 접수 시 작품 훼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작품 접수 후 전시까지 보관 과정에서 작품 자체 변형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발표작, 표절작,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제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출품할 수 없다. 초대작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은 "공모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많은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공모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2)547-4746(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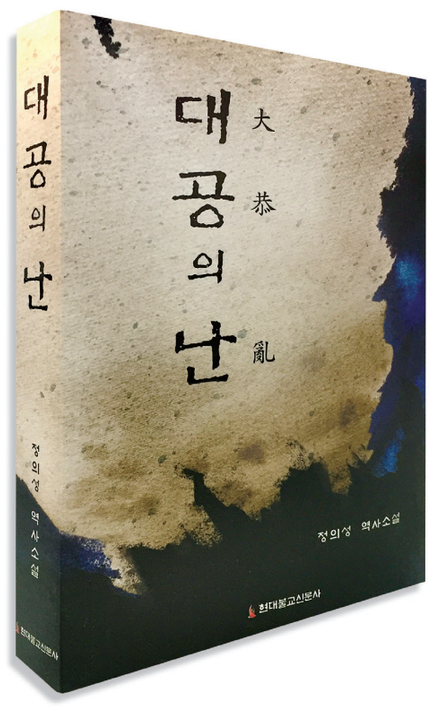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